

# 목 동

면적 0.70km<sup>2</sup>, 인구 1만 2277명(2008)이다. 북쪽으로 증촌동, 동쪽으로 선화동, 남쪽으로 오류동·용두동, 서쪽에 유등천(버드네)이 서구와 자연 경계를 이루는 중구의 서북부 지역이다.

## 牧 洞 4

2019 지역리서치 프로젝트 진행과정기록

2019 Regional Research Projects  
Progress record

# 목동

## 4

2019 지역리서치  
프로젝트  
진행과정기록



2019 Regional Research Projects  
Progress record

---

C O N T E N T S



04

목동 개요



08

목동4지구 조사를  
진행하며



18

진행과정



22

참여소감

## 목동4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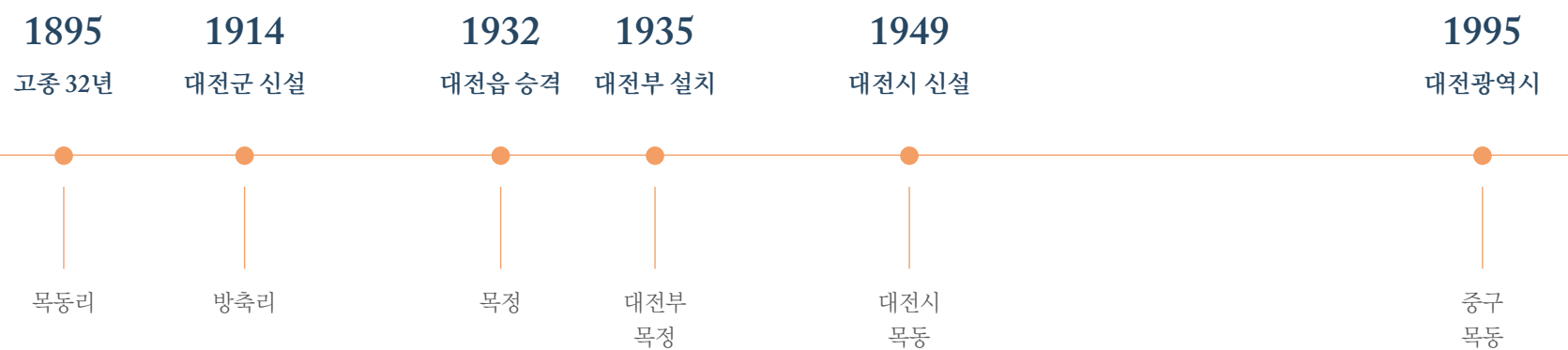
대전은 전근대 행정구역상 공주목의 일부, 회덕현, 진잠현 등 세 군·현이 근대에 통합되어 이루어진 도시로 근대에 들어 경부선과 호남선철도가 개통되면서 신항도시로 크게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대전이란 지명은 한밭이란 우리 말 지명이 조선시대에 대전이라 표기되었고, 자연부락이었던 곳이 구한말 이후 행정구역인 리로 발전하여 점점 광역화된 지명으로 되었다.

목동은 백제시대에 우술군에 속했고 신라때는 비풍군에 속한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공주목 산내면에 속한 목골 또는 못골이라고 했는데, 1895년 즉 고종 32년에는 회덕군 산내면 하룡리, 종촌리, 방축리, 목동리에 속하다가 1914년 대전군이 신설되자 이들 지역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외남면 방축리라 하였다.

# Mok-dong Overview







1932년 대전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대전읍 목정(牧町)에 속하였고, 1935년 총독부의 대전부 설치로 대전부 목정이라 하다가 1946년 목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49년 대전시의 신설로 대전시 목동이 되었다. 1977년 대전시에 구(區)제 실시로 중구 목동에 편입되었고, 1989년 1월 1일 대전 직할시로 개칭되어 중구 목동에 편입되었고, 1995년 1월 1일 대전광역시로 개칭 중구 목동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목동4지구의 지역리서치를 진행하며

이상희(목원대학교 교수)

건축, 민속, 사진, 예술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팀 중 건축분야의 연구자들이 먼저 마을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아직 마을에 살고 있었고 모두가 재개발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었다. 지역리서치 프로젝트의 사업 취지가 제아무리 바람직한 일이라 해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곧 사라지게 될’ 대상으로서의 조사는 당연히 달가울 수 없었다. 이는 목동뿐만 아니라 선화동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마을에 가장 먼저 진입했던 건축팀은 주민들과 관계를 만들기까지 쉽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목동4지구 조사의 총괄이자 건축분야 연구자로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던 이상희 박사의 글을 싣는다. 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보고서와 자료로 남겼다.





대전에서 건축이 갖는 문화적 위상이 다른 시각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아직까지 건축 전반에 걸쳐 지역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근 기록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역사와 생활사 연구에 대한 관심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건축아카이브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건축은 건축 내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 외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공학적 구조물의 구축이라는 의미보다 지역의 정체성이나 문화를 투영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타 분야의 활동들까지도 건축이라는 공간 속에서 기록되고 보존된다는 점에 메타미디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민들과 전문가나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건축아카이브 실천들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제효과에만 주목하면서 각종 재개발사업들을 경쟁적으로 벌여왔다. 지역 사정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은 정작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역민들이 소외되거나 문화 소비자로 전락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공간인 지역과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문화단체들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재개발에 의해 사라져가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아카이브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 중 대전 목동 재개발지역의 아카이빙사업은 ‘지역리서치’라는 주제로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운명에 처한 ‘삶터의 모습과 일상의 이미지’를 지역 공동유산으로 기록, 보존하고자 하는 기록보존 사업의 시작이다. 앞서 다양한 분야별 지역리서치를 통해 그 결과물들은 전시와 출판을 통해 지역민과 다시 공유되었다. 이러한 도시 공간에 대한 기록화사업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도시 모습을 지역리서치를 통해 아카이브로 구축하려는 의미있는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시에서는 대전근대아카이브포럼과 함께 대전 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대전 근대사아카이브구축 및 활용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건축들을 본격적으로 수집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건축아카이브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 사회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건축아카이브 실천들은 모두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억 담론과 기억 연구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기억의 주체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지역 아카이브 실천을 통해 공식역사가 강요해 온 공식기억에 대항할 가능성과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축을 매개로 한 공통 기억의 지평 위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장소와 기억을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래서 소중한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산업화사회를 거치면서 건축은 우리의 근대적 인식과 그 기원을 살피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기제이자 증거적 사료이다. 그리고 건축 속에는 근현대사의 숭한 사건과 향취와 모습들이 담겨 있으며, 우리들의 삶 자체가 건축으로 만들어진 '공간' 속으로 생산될 정도로 모든 과정들이 건축물의 공간 속에서 기념되고 기억되어 왔다.

지역리서치라는 작업 속에서 건축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실천들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건축아카이브는 '지역 내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라는 기억의 저장소 또는 보존소라는 점에서 아카이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생산된 수많은 건축자료들을 통해서 지역사 및 생활사 연구 그리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목동이라는 지역의 건축아카이빙 작업이 갖는 의미는 변화 속에서 자신들이 몸담았던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민들에게 잃어버린 추억과 그로 인해 무너진 정체성을 복원시켜주는 '기억 재생작업'이며, 타 지역민이나 재개발 이후 새로 이주해 올 이방인들에게는 원주민과 쉽게 동화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억공유'이다. 나아가 세대간·계층간 공감과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더 많은 건축아카이브 실천에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지구’ 리서치를 마치면서

강성복(충청민속문화연구소장)

지역리서치 프로젝트의 조사분야 중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민속조사였다. ‘문명국가의 서민사회에 전승되는 기층문화’라고 정의되는 민속은 민간의 생활인 동시에 생활의 계속, 또는 반복에서 이룩되어 전승되는 민간 공통의 습속을 뜻한다.

목동4지구에서 생활하며 삶을 꾸려왔던 주민들의 이야기와 삶의 단편들이 가장 세밀하면서도 담담하게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던 분야가 바로 민속분야였다. 목동4지구의 민속조사를 진행한 강성복 소장의 조사 후기를 남긴다. 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보고서로 남겼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일생을 통해 축적된 무형의 지식과 삶의 지혜가 그만큼 소중한다는 의미이다. 이 속담을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마을 하나가 없어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의 마을은 누대를 이어온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기실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공동체의 지혜와 전통 지식, 문화사의 궤적이 오롯이 갈무리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마을이란 삶의 터전을 찾아나서는 답사여정은 늘 신선한 울림이 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9년 8월 7일, 바야흐로 주택재개발을 목전에 둔 목동4구역을 처음 둘러보았다. 언덕배기에 형성된 낡은 건물과 인적을 잃은 거리, 그리고 오래 전부터 비어 있는 듯한 스산한 살림집 풍경은 그동안 답사의 현장에서 마주한 전통마을과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었다. 게다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 공간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조차 없는 열악한 생활 환경을 목도하면서 적이 당혹감마저 들었다. 그렇다면 민속조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노파심으로 출발한 현장조사는 시초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토박이 주민들을 만나기가 녹록지 않은 여건 탓에 민속조사와 구술자료 채록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파편에 불과한 작은 정보가 누적되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목동4구역의 옛 모습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목동4구역의 민속과 구술자료는 단지 재개발지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조사범위는 목동 일대를 망라할 뿐 아니라 때로는 제보자들이 태어난 고향마을, 식민치하의 만주와 일본 생활, 한국전쟁 등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목동4구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토박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사와 사회조직, 마을신앙 및 가정신앙, 세시풍속, 전래놀이, 민간요법, 소장자료 등을 갈무리했다.

목동4구역은 대전광역시 근현대사의 자취가 응축된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3.1만세운동에 가담한 애국 지사를 투옥시킨 악명 높은 대전형무소가 건립되고, 대전 최초의 로마 카톨릭 성당인 목동성당이 들어서서 복음을 전파했다. 또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일제치하 만주 및 일본에 귀국한 주민들과 북쪽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물려들어 판자촌을 형성하였으니, 그곳이 바로 목동4구역을 비롯한 목동15번지 일대이다. 그런가하면 한국전쟁 기간에는 인민군과 군경이 교차로 진입하면서 수많은 양민이 학살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부족하나마 본 리서치에서는 주택재개발로 사라질 운명에 놓인 목동4구역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담아내고자 했다.



# 진행과정

Process





## Process

목동 4구역에 대한 지역리서치는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였으며, 건축분야를 비롯해 민속구술, 사진영상, 예술 분야가 작가들이 콜라보로 진행되었다. 이는 재개발과 도시계획 등 다양한 도시변화 요인들 속에서 사라져가는 마을에 대한 유무형에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다.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속성들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현실에 맞닥뜨리는 목동에서 지워지는 역사의 기억, 또는 흔적... 건축이나, 길, 골목, 등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대성이 반영되어 형성된 다양한 오브제들에 사라짐을 지역리서치에서 통해 기록과 예술적 표현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재편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목동 4구역에 남겨진 다양한 모습과 이야기를 아카이빙을 통해 남기기 위해 참여 작가들에 첫 모임을 지면에 남긴다.

### 일시

2019. 8. 7.

### 참석자

이상희, 김윤정, 진시현, 박정수, 정상숙, 정찬영,  
이상훈, 강성복



- 목동 4구역 지역리서치는 기존 예술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지역리서치를 도시문화를 관찰하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기록화를 위해,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가 콜라보를 이루어 시도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팀웍이 중요하며, 각 분야별 조사와 전체조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물리적·지리적 특징 등 지역의 역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참여작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티가 필요함.

- 전체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각 분야별 의견을 개진하여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특히 목동 4구역의 역사적 배경은 건축 뿐만이 아니라 모든 참여 분야에서 이해하고, 향후 작업 진행에 기본적인 방향성 설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함.

- 분야별 현장조사는 각 분야별 작가들에 스케줄을 공유하고, 조사 내용 또는 다른 분야 참여작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예, 마을 주민인터뷰 대상, 가옥의 특징이나 공간의 특징 등을 공유)

- 김윤정과 진시현작가가 마을 조사를 위해 사전 협의체 또는 활동가 중심에 인적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사함.

- 분야별 조사대상 또는 기록화 대상은 사전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분야별 작품(기록화) 대상을 선정하여 사진촬영등 자료조사를 선행한 후 기록으로 남김.

· 마을의 역사와 스토리  
· 마을의 형성과 물리적 변화에 대한 조사  
· 건축 및 공간에 대한 조사

- 민속 및 구술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및 활동 작가 (김윤정, 진시현, 정상숙)의 선행 조사에 도움이 필요함

- 목동 4구역에 한정하지 말고, 대상지역에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필수 불가결한 주변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분야별 작가의 조사 범위에 자율적 포함)

- 건축부분 기본자료조사(이상희, 진시현) 후 실측 및 도면작성(이상훈, 박정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행 조사를 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조사내용 또는 현장 사진은 웹하드에 공유할 수 있도록하고, 분야별 기록화 자료는 작가들이 직접 별도 백업데이터를 관리해야함.





# 참여소감

Participation



# 정찬영

촬영감독

Cinematographer

대전을 기록한다는 것에 대해 뜻깊은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 맞물려 이야기하는 것이 재개발이고 새것이 들어섬과 동시에 옛것이 사라지며, 그 공간에 추억과 함께 사라지는 것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대전을 살아온 내가 목동을 갔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살펴보니 그 안에 이야기들과 골목마다 아름다운 풍경들이 녹아있었고 골목 사이로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마을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아쉬움 점도 많이 남았습니다. 기한이 짧음과 사업 시작단계에 날씨가 좋지 못해서 기록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목동이라는 곳은 사람들에게 잊혀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분들에게는 뼈아픈 아픔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함께 사는 주민은 아니었지만 대전이라는 한 공간 안에 기록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골목 사이로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마을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상숙

작가

Writer

본인은 현장에서 기록하는 어반스케치 작가로서 현장에서의 일상들을 마주하며 대상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2019년 8월1일.

이미 7월부터 목동 4구역을 돌아보기 시작하여 익숙해진 골목을 돌고 스케치를 시작하였다. 찰집 주인 어르신과 그 집 앞 공터에서 폐지를 정리하시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스케치를 하는 동안 계절적 영향이었는지 주민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동네치고는 이동하시는 분들을 자주보기가 어렵기는 했으나 간간히 마주대하시는 분들의 관심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디서 나왔어요?

시간대가 안 맞아 그들도 없는 을지맨션 담벼락에서 작업을 할 때 거주하시는 아저께서 들고 나오신 얼린 생수와 “학생 뜨거운데서 뭐해! (호호 난 50대 아줌마인데...)”



목동에 다니는 동안 절반은 마주친 김 호운 어르신. 이 분과의 만남이 목중로의 스케치가 시작된다. 가장 많은 이야기와 건네주시는 바카스, 떨어진 감, 그리고 더운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가라면서 붙잡기도 하셨다.

그리고 아주 가끔 마주친 낯은 유모차 또는 리어커에 버려진 박스를 모아 끌고 가시는 어르신, 옥상에 올라가고 싶다는 말끝에 당신의 방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끄러움?도 서슴치 않고 거주공간을 보여주시면서 옥상을 개방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화초들은 유기화분들을 모아 키우셨다 한다.

계란판을 모아 모깃불을 피우고, 연탄 배달차를 보며 이 구역이 아직도 도시가스 안들어 온 곳 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유난히 눈에 들어온 커다란 석류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오동나무 등이다.



나의 모습이 몇 개월 동안 노출이 되어서인지 옥상도 내어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며 자연 풍경들이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뀐 것을 느꼈을 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들.

20년동안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느리게 변화한 모습에 이곳 원주민들은 이주의 체감 온도는 다를 것이다. 목중로의 골목들이 이어지듯 원주민들의 삶이 원만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개발의 속 모습을 보며 추억 속 옛이야기로 남게 될 이야기를 그리며...



# 목동 4

2019 지역리서치 프로젝트

목동4지구 연구조사 참여자

단체명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	이상희(목원대학교 교수)
건축	진시현(우리문화유산연구원), 이상훈(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정수(우리문화유산연구원)
민속	강성복(충청민속문화연구소장)
영상	정찬영(촬영감독)
예술	정상숙(작가), 김윤정(작가)

2019 지역리서치 프로젝트  
진행과정기록

2019 Regional Research Projects  
Progress record



## 2019 지역리서치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발행일 2019. 12. 31  
발행인 박만우  
발행처 [재]대전문화재단  
디자인 [주]이노애드디자인그룹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집 4F  
전화 042.480.1022  
팩스 042.480.1099  
홈페이지 [www.dcaf.or.kr](http://www.dcaf.or.kr)[대전문화재단]

© 본 결과자료집의 저작권은 대전문화재단이 소유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